

지원동기 (300자 이내)

고등학교 3학년 말,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던 때에 저는 훗날 일반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대내외 성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은퇴할 시점에 제 자신이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바로 경제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의 각론을 공부할 때는 특히 국제경제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내 산업 구조가 수출 중심인 만큼, 수출입은행에서 전략 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행 후 포부 (300자 이내)

저는 기회가 된다면 입행 후 미래성장금융본부 산하 미래산업금융실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서에서 경험을 쌓으며 수출입은행의 장점인 '직무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외경제환경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싶습니다. 금융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려면 급변하는 대외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성장금융본부를 움직이는 책임자로서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및 내세울만한 강점 또는 특기 (300자 이내)

저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공시키는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제 성격과 성실함이 강점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입학한 후 배운 경제학과 경영학 전공지식을 빨리 활용하고 싶어, '조기졸업'을 목표로 성실히 학업에 임한 결과 내년 2월에 한 학기 빠르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한 경험들은 입행 후, 신입 행원으로서 겪게 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과 이를 통해 배운점 (600자 이내)

"아들아, 살아가면서 성실을 항상 잊지말거라."

어머니께서 중학교에 입학한 첫날 제게 해주신 말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가치관이 정립되기 시작할 나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가족과 같이 식사할 때나 제게 간식을 가져다주실 때 항상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성실히 학업에 임한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매사에 성실한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 줄곧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직접 본 영향이 가장 큼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서울에서 충북 충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야쿠르트 판매, 가정집 청소 등 굵은일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충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게으르거나 나태해짐을 느낄 때마다 항상 저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성실'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인문학 서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 (600자 이내)

얼마 전 읽은 박웅현 씨의「책은 도끼다」는 그동안 고수해 오던 제 책 읽는 습관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책의 신선한 제목에 이끌려 읽기 시작한 지 6시간 만에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이 책을 빨리 구해 읽지 않았다는 것에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책을 읽어오면서, 저는 텍스트가 전달하는 의미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받아들이 방법도 알지 못했을뿐더러 마음가짐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책은 '머리의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동안 감수성의 한 귀퉁이도 깨오지 못했습니다. 학업에 치여 성적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글 읽기를 해왔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인문학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금융을 다루는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내외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일종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